

## SK에너지, 파푸아뉴기니 천연자원 개발

SK에너지와 울산상공회의소는 8월25일 울산상의 대회의실에서 파푸아뉴기니 걸프주의 하빌라 카보(Havila Kavo) 주지사와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양해각서를 통해 울산상의와 SK에너지는 “걸프주가 추진하는 석유 및 가스 부문 개발사업 설비인력에 대해 기술지도와 교육, 연수 등을 성실히 이행해 걸프주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걸프주 정부는 “울산상의와 SK에너지에 대해 주 정부의 석유부문 다운스트림 사업 설비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이에 따라 SK에너지를 비롯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이 파푸아뉴기니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플랜트 및 제품 수출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8/25>